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역할과 인지적 공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원 선 호

단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배 성 만[‡]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

본 연구는 20대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및 충청남 지역의 20대 미혼남녀 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과의 사이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 사이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PSS Macro Model 8을 이용하여 인지적 공감을 통한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항이 역기능적 분노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고, 역기능적 분노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인지적 공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내현적 자기에 성향, 데이트 폭력, 역기능적 분노, 인지적 공감

[†] 이 논문은 원선호(2019)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배성만,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 Tel: 041-550-1482, E-mail: spirit73@hanmail.net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7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160만여 건의 범죄 중 1만 4천여 건(0.8%)이 애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가 2014년 6천675건에서 2017년 1만303건으로 4년 만에 5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17). Makepeace(1981)의 연구에 따르면 21.2%가 이성 관계에서 폭력적 관계를 경험하였고, Elmquist 등(2016)의 연구에서도 미국 대학생의 29.4%가 데이트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성인 세 명 중 한 명이 신체적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서경현, 2009; 안귀여루, 2002; 장희숙, 조현각, 2001), 성적 데이트 폭력 경험 또한 14.6%로 나타났다(김정란, 김경신, 1999).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한 사람이 상호간 합의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로 행하는 폭력을 의미한다(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은 외상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불안과 우울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고(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 대인관계 부적응 같은 사회적, 정신적 기능수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tz, 2007; Bossarte, Simon, & Swahn, 2008; Chase, Treboux, & O’leary, 2002; Dardis, Dixon, Edwards, & Turchik, 2015). 특히 데이트 폭력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폭력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은밀하고 만

성적으로 이루어지며(서경현, 2009),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에 비해 더욱 주목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O’Leary, Malone, & Tyree, 1994).

데이트 폭력 가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성장 배경, 학력과 수입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격적 특성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Afe, Emedoh, Ogunsemi, & Adegbohun, 2016). Riggs와 O’Leary(1989)가 제시한 이성교제 폭력모델은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후관계성 요인(contextual variables)과 상황적 요인(situational predictors)으로 구분하였는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상황적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을 이해하는데 개인의 성격적 요인을 다루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안귀여루, 2006). 한 개인의 성격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개인의 성격특성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깊은 수준의 대인관계 중 하나인 데이트 관계에서 성격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에서 데이트 폭력과 관련성이 높은 성격 특성으로 분노(Papps & O’Carroll, 1998; Witte, Callahan, & Perez-Lopez, 2002), 공격성(천주명, 임영진, 2017; Barry et al., 2007), 충동성(김유정, 서경현, 2009)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높은 성격으로 ‘자기애(Narcissism)’가 있는데, 최근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박다원, 이인혜 2016; Baumeister, Bushman, & Campell 2000; Carton & Egan, 2017).

자기애는 여러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개념으로 구분해볼 수 있지만,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류는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두 유형이다. 이러한 구분은 자기에가 발현되는 양상에 따른 것인데, 이는 이론적 개념뿐 아니라 요인 분석을 통한 경험적 증거로도 지지되어왔다(강선희, 정남운, 2002). 두 자기에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웅대한 자기상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외현적 자기에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자기표상을 가지며 대인관계에서 지배에 대한 욕구와 자기 과시적인 특징이 외부로 쉽게 드러난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에의 경우 표면적으로 자기에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내면에 강한 열등감을 가지며 자신에 대한 비판과 현실적 좌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평가 예민성이 두드러진다(권석만, 한수정, 2000).

초기의 자기에 연구들은 외현적 자기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현적 자기에가 외현적 자기에에 비해 타인의 거부와 비판에 더욱 취약하고 대인관계 측면에서 더 뚜렷한 기능적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강연우, 2004).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웅대한 자기상에 자신을 완벽하게 맞추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상적인 자기와 실제 자기상의 괴리 사이에서 불안을 경험하여 스스로 열등감, 수치심, 굴욕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bbins & Dupont, 1992). 이들은 이상적인 자기상이 위협받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현적 자기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의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이성욱, 송현주, 2011).

Baumeister, Smart, 그리고 Boden(1996)의 ‘위협된 자기이론(Threatened Egotism Theory)’에 따르면 자기중심적이고 과장된 자기 개념을 가지는 자기에 성향자의 경우,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와 같이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협에 직면하면 위협된 자기상을 보상하기 위해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 반응이 발생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

분노는 일상생활에서 타인과의 갈등상황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기본 정서 중 하나이며(Frijda, 1986), 데이트 관계에서도 빈번하게 경험되는 감정이다. 분노는 다른 정서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서로서 개인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으로 사용할 경우, 폭력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Derryberry & Rothbart, 1988).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 자기 가치감에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자기에의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를 통해 자존감을 보호하려 한다(서수균, 권석만, 2002). 따라서 분노는 자기에 성향자가 경험하는 특징적인 정서 중 하나이다. 자기에 성향과 분노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높은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은 통제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 보다 분노를 더 억압하는 경향이 있으며(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자기에 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분노표출은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백승혜, 현명호, 2008).

역기능적 분노는 특성분노 수준이 높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지영, 손정락 2010). 특성 분노란, 상황과 시간에 관계없이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된 형태로 분노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는 성격적 경향성을 말한다(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 분노 억압은 분노를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거나 분노 유발 사건과 관련된 사고와 감정을 억압하고 부정하는 것을, 분노 표출은 자신이 느낀 분노를 타인이나 특정한 대상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욕설, 비난, 극단적 모욕, 과격함 행동 등의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선행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의 역할을 탐색하였다(김시원, 박경, 2012; 남귀숙, 2018; Caina et al., 2016). 관련 연구들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분명하지 않다(김시원, 박경, 2012; 남귀숙, 2018).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사이에 조절변인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동일시하여 상대방처럼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된다(Smith, 2006). 공감은 다른 사람과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게 도와주고 친사회적인 행동의 원천이 된

다(Hoffman, 1981). Davis(1980)는 공감을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구분하였는데 정서적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 상태에 대해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며,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 믿음, 바람과 같은 마음 상태를 표상하는 능력이다(박민, 2012).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과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합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이성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김정희, 이희경, 2015). Khodabakhsh와 Besharat(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이 공감을 적게 할수록 부적응적 대인관계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olliffe와 Farrington(2004)의 연구에서도 낮은 공감 수준이 높은 공격행동을 예측하였으며, 정서적 공감보다 인지적 공감이 공격행동과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van Langen, Wissink, van Vugt, Van der Stouwe, & Stams, 2014).

선행연구들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수준의 인지적 공감 수준을 보였으며, 인지적 공감수준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우정, 2011; 배미정, 조한익, 2014; 최지영, 이영순, 2014). Hoffman(1981)은 공감적 인지 과정의 수준에 따라 왜곡된 사고나 부정적 감정이 조절된다고 하였는데, 특히 분노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분노를 조절할 힘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감적 인지과정은 부정적 감정에 의해 이차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역기능적 대처방식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Sakellaropoulo와 Baldwin(2007)의 연구에서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분노가 공감적인

사고를 통하여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자기에 성향을 가졌지만 공감적 사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더 낮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askin-Sommers, Krusemark와 Ronningstam(2014)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 공감 능력을 가지는 자기에 성향자가 더 낮은 수준의 분노와 자기비판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인지적 공감이 자기에 성향자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역기능적 분노와 데이트 폭력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askin-Sommers et al., 2014; Hoffman, 1981; Sakellaropoulo & Baldwin, 2007).

이처럼 내현적 자기에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역기능적 분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3.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4.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은 역기능적 분노를 통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방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미혼남녀 39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5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 중 남성은 169명(47.1%), 여성은 190명(52.9%)이었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3.56세 ($SD=2.53$)로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포함한 모든 연구절차는 단국대학교 생명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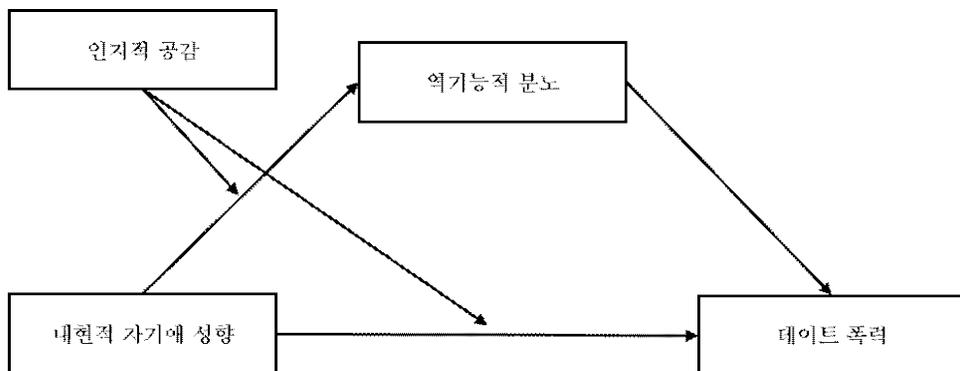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매개된 조절 모형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19-09-031).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에 척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바탕으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5문항의 5점 Likert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 각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 .90,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83, 착취/자기중심성 .74, 과민/취약성 .80, 소심/자신감부족 .84이었다.

개정판 갈등전략 척도.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정판 갈등전략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2: CTS-2, 1996)를 사용하였다.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수정, 개발한 척도를 김정란(1999)이 국내의 대학생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1: 전혀 없다 ~ 5: 매우 자주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의 가해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대표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짜증난 목소리로 화를 낸 적이 있다.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이성친구를 때린 적이 있다. 이성친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3, 각 하위요인인 심리적 폭력 .81, 신체적 폭력 .63, 성적폭력 .81이었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한국 문화에 맞도록 한덕웅, 전경구, 이장호(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이다. 총 44문항으로 분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와 분노 표현의 세 가지 방식인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통제(8문항)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역기능적인 분노와 관련된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성분노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으로 명명되는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의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여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4: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분노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대표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평소에 일반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성미가 급하다. 나는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나, 안으로 양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분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1, 각 하위 요인인 특성분노 .85, 분노억압 .84, 분노표출 .81이었다.

대인관계반응지수. 공감의 다차원적 측면 중

인지적 공감 능력의 측정을 위해 Davis(1980)의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박성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각 7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위 척도는 상상하기,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이다. 척도는 총 28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인지적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 상황을 이해하고 정신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대표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나는 대개 잠시나마 그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73, 각 하위 요인인 관점취하기 .77, 상상하기 .74 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0과 Hayes(2014)가 개발한 PROCESS macro for SPSS v3.4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1.0을 이용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역기능적 분노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모형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사용하였으며(Baron & Kenny, 1986), Hayes(2014)가 개발한 SPSS Macro 프로그램인 PROCESS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과 역기능적 분노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공감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Aiken & West, 1991). 이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상호작용의 세부적인 모습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변인의 각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Hayes(2014)가 제안한 매개된 조절모형 분석 절차에 따라 SPSS PROCESS를 활용하여 인지적 공감 수준에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역기능적 분노를 매개로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 조건적인 간접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결합하여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된 조절 모형은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각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단순 매개효과와 단순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따라서 위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한 후,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각각의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역기능적 분노와 정적상관($r=.419, p<.001$)을, 데이트 폭력과 정적상관($r=.129, p<.05$)을 나타냈다. 또한 인지적 공감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부적상관($r=-.158, p<.01$), 역기능적 분노와 부적상관($r=-.356, p<.001$), 데이트 폭력과 부적상관($r=-.304, p<.001$)을 나타냈다. 즉, 높은 수준의 인지적 공감이 낮은 수준의 내현적 자기에 성격 성향, 역기능적 분노 및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역기능적 분노를 매개로 하여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를 사용

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표 2). 부트스트래핑으로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으며, 간접효과 계수는 .0749이었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역기능적 분노에 대해 매개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519, .1006이었다. 하한값과 상한값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서영석, 2010).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Muller, Judd, & Yzerbyt(2005)이 제안한 매개된 조절효과의 검증절차를 바탕으로 인지적 공감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359$).

	1	2	3	3-1	3-2	3-3	4
1. 내현적자기에	-						
2. 역기능적 분노	.419***	-					
3. 데이트 폭력	.129*	.523***	-				
3-1. 심리적 폭력	.115*	.535***	.960***	-			
3-2. 신체적 폭력	.146**	.313***	.736***	.534***	-		
3-2. 성적 폭력	-.017	.117*	.353***	.176**	.401***	-	
4. 인지적 공감	-.158**	-.356***	-.304***	-.297***	-.198***	-.129*	-
<i>M</i>	121.33	49.91	31.53	19.41	7.98	4.14	25.26
<i>SD</i>	21.54	11.64	6.90	5.11	1.84	.73	3.93

* $p<.05$, ** $p<.01$, *** $p<.001$.

표 2.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인	B	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LLCI	ULCI
역기능적 분노	.0749	.0123	.0519	.1006

L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인지적 공감을 평균중심화하였고, 두 변인의 곱을 산출하여 상호작용항(내현적 자기에 성향 × 인지적 공감)을 설정하였다. 먼저, 예측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조절변인인 인지적 공감을 동시에 투입하고, 다음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데이트 폭력에 대한 R^2 의 변화량이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지적 공감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Delta R^2=.020, p<.01$)를 보였다(표 3).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인지적 공감의 조건 값(Mean - 1SD, Mean, Mean +1SD)에 따라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단순 회귀선을 산출하여, 그림 2에 그래프로 제시하였

표 3.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검증(N=359).

변인	결과변인: 데이트 폭력					
	비표준화계수		β	t	R^2	R^2
	B	SE				
내현적 자기에(A)	.043	.017	.136	2.577*	.028	.018
A	.029	.016	.090	1.761		
인지적 공감(B)	-.513	.089	-.293	-5.751***	.112	.083
A	.039	.017	.122	2.356*		
B	-.482	.089	-.275	-5.423***	.132	.020
A×B	-.011	.004	-.146	-2.84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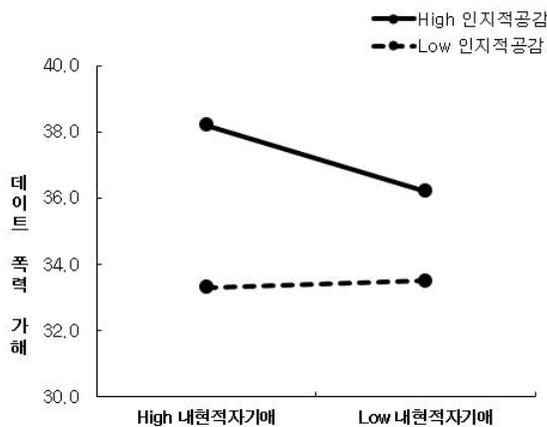


그림 2.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다(Aiken & West, 1991; Cohen, Cohen, West, & Aiken, 2003).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공감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 사이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위에서 인지적 공감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인지적 공감을 평균 중심화하였고, 두 변인 간의 곱을 산출하여 상호작용항(내현적 자기에 성향 × 인지적 공감)을 설정하였다. 먼저, 예측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조절변인

표 4.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역기능적 분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검증(N=359).

변인	결과변인: 역기능적 분노					
	비표준화계수		β	t	R^2	R^2
	B	SE				
내현적 자기에(A)	.228	.026	.422	8.711***	.179	.177
A	.203	.025	.375	8.085***	.267	.088
인지적 공감(B)	-.885	.137	-.300	-6.479***		
A	.215	.026	.398	8.406***	.277	.010
B	-.850	.137	-.288	-6.204***		
A×B	-.013	.006	-.102	-2.198*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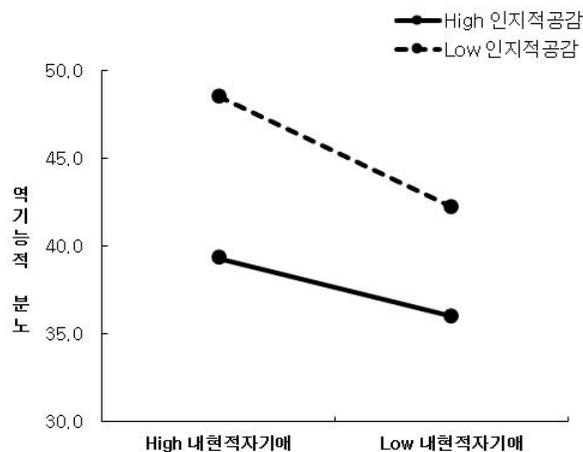


그림 3.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인 인지적 공감을 동시에 투입하고, 다음으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역기능적 분노에 대한 R^2 의 변화량이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지적 공감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Delta R^2=.010$, $p<.05$)를 보였다(표 4).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인지적 공감의 조건 값(Mean - 1SD, Mean, Mean + 1SD)에 따라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단순 회귀선을 산출하여, 그림 3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Aiken & West, 1991; Cohen et al., 2003).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공감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역기능적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B=-.0114$, $p<.01$), 2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B=-.0134$, $p<.05$). 3단계에서 역기능적 분노를 매개변인으로 통제된 후,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와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Hayes(2014)의 PROCESS Model 8을 이용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분석결과, 역기능적 분노는 데이트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B=.2974$, $p<.001$), 역기능적 분노를 통제된 후에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유의미하였으며($B=-.0074$, $p<.05$), 그 영향력이 1단계에서 구한 총 조절효과($B=-.0114$, $p<.01$)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가 역기능적 분노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나 역기능적 분노를 통한 인지적 공감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모형인 매개된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인지적 공감의 평균값과 $\pm 1SD$ 값을 이용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매개된 조절효과가 갖는 계수의 값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인지적 공감의 수준이 커질수록 매개된 조절모형의 간접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Mean - 1SD = .0817, Mean = .0615, Mean + 1SD = .0494). 이는 인지적 공감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상호작용하여 데이트 폭력과 역기능적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조절효과는 인지적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분노의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매개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의미한다.

표 5. 인지적 공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1단계	결과변인: 데이트 폭력					
	비표준화계수		<i>t</i>	LLCI (<i>b</i>)	ULCI (<i>b</i>)	
	<i>B</i>	<i>SE</i>				
내현적 자기에 × 인지적 공감 (a)	-.0114	.0040	-2.8459**	-.0193	-.0035	
2단계	결과변인: 역기능적 분노					
	비표준화계수		<i>t</i>	LLCI (<i>b</i>)	ULCI (<i>b</i>)	
	<i>B</i>	<i>SE</i>				
내현적 자기에 × 인지적 공감(b)	-.0136	.0062	-2.1976*	-.0257	-.0014	
3단계	결과변인: 데이트 폭력					
	비표준화계수		<i>t</i>	LLCI (<i>b</i>)	ULCI (<i>b</i>)	
	<i>B</i>	<i>SE</i>				
	역기능적 분노 (c)	.2974	.0308	9.6476***	.2368	.3580
	내현적 자기에	.1608	.0960	1.6749	-.0280	.3497
인지적 공감	.6649	.4501	1.4773	-.2203	1.5501	
내현적 자기에 × 인지적 공감(a)	-.0074	.0036	-2.0518*	-.0144	-.0003	

p*<.05, *p*<.01, ****p*<.001.

표 6. 인지적 공감의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 분석

인지적 공감의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				
인지적 공감	간접효과계수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ean -1SD	.0817	.0165	.0522	.1171
Mean	.0615	.0103	.0427	.0835
Mean +1SD	.0494	.0101	.0309	.0706

주, 매개변인: 역기능적 분노, Boot LLCI: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Boot ULCI: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대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 데이트 폭력 각각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합하여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데이트 폭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 가해의 예측변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시원, 박경, 2012; 박다원, 이인혜, 2016; Carton & Egan, 2017).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부정적인 반응에 쉽게 위축된다(정남운, 200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자기에적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거부단서에 몰두하게 되고 분노를 경험하며 관계의 안정성이 감소하고 불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관계 불만족은 이성간의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Follingstad, Bradley, Helff, & Laughlin, 2002).

둘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데이트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분노가 높아져 데이트 폭력을 촉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기능적 분노가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 연구(김시원, 박경, 2012; 남귀숙, 2018; Li et al., 2016)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그들의 긍정적인 자기평가에 도전하는 정보나 자아상에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분노 반응을 통해 자존감을 보호하려 한다.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분노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강하며 분노감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수균, 권석만, 2002). 이를 고려할 때,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이성관계의 갈등상황에서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백승혜, 현명호, 2008; 서수균, 2007).

셋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내

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인지적 공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인지적 공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대인관계의 성패가 인지적 공감의 수준과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김우정, 2011; 배미정, 조한익, 2014; 최지영, 이영순, 2014). 공감의 부족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에게 쉽게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이다(이현라, 2016).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정서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타인과 친밀감을 추구하기보다 그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 탓에 공감의 수준이 낮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자기에적 방어기제의 사용과 함께 부적절한 사회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선행연구들은 공감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언어, 상황적 단서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공격성의 수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Kaukiainen et al. 1999),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공감보다 인지적 공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배미정, 조한익, 2014). 인지적 공감의 수준이 높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타인의 입장에서 관점수용과 조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

넷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인지적 공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역기능적 분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

면, 인지적 공감에 낮은 집단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역기능적 분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인지적 공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분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특징적 정서인 역기능적 분노가 인지적 공감의 수준을 통해 조절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Sakellaropoulou & Baldwin, 2007). 또한 인지적 공감이 분노와 정서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Jolliffe & Farrington, 2004; van Langen et al., 2014). 인지적 공감의 수준이 높으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와의 관계가 약화되고, 인지적 공감의 수준이 낮으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의 관계가 강화한다. 높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역기능적 분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더욱 예민하게 지각하고 상대방을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지적 공감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대인관계에서의 역기능적 분노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 중 하나인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경로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역기능적 분노에 의해 매개되는 매개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이 역기능적 분노라는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역기능적 분노가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내현

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경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역기능적 분노 수준의 감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지적 공감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지적 공감은 대인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경험하는 역기능적 분노를 조절하게 하고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역기능적 분노를 통하여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간접경로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사이에서 인지적 공감과 역기능적 분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단순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탐색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통합한 매개된 조절모형을 적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20대 미혼남녀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변인과 정서적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데이트 폭력 가해 요인을 개인의 성장 배경, 학력과 수입 같은 인구사회학적 차원의 변인에서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성격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이 조절하는 매개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20대의 미혼남녀의 데이트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공감의 수준을 높여 역기능적 분노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공감교육에 기반을

둔 정서조절프로그램이 정서지능 향상과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권유경, 2016; 송지애, 조미아, 2018). 따라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인지적 공감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 경기 및 충남의 특정지역 2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들은 자기 보고 형식으로 측정되었다. 때문에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자기 스스로의 폭력 가해행동을 평가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반응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개인적 면담, 제3자에 의한 보고 등과 같은 질적 변인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설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확신하기에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설계를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연우 (2004). 자기에와 방어유형. *학생생활연구*, 9, 83-98.
- 경찰청 (2017). *경찰범죄통계*.
- 권석만, 한수정 (2010). 자기에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135-1143.
- 권유경 (2016). 국어교과와 연계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정서조절능력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 이희경 (2015).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영향: 경험 회피와 자기자비, 인지적 공감의 경로 탐색. *상담학연구*, 16(6), 83-107.
- 김시원, 박경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와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10), 121-141.
- 김우정 (2011). 기혼자들의 자기에성향, 공감, 자존감 및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경, 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83-402.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 - 90.
- 남귀숙 (2018).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다원, 이인혜 (2016). 자기에적 과시, 허용적 성태도, 경미한 성폭력 가해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153-172.
- 박민 (2012).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정신병리와 심리재활에의 함의. *재활심리연구*, 19(3), 387-405.
- 배미정, 조한익 (2014). 내현적 자기에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상담학연구*, 15(6), 2417-2435.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행동*. 서울: 문음사.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 경험 수준 및 분노표현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서수균 (2007). 한국판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39-250.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송지애, 조미아 (2018). 공감독서교육이 공감능력과 정서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267-292.
- 안귀여루 (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55-75.
- 안귀여루 (2006).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709-726.
- 이성욱, 송현주 (2011).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정서조절 전략,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연구 고찰.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1), 65-83.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지영, 손정탁 (2010).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간 관계에서 불안장애착과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541-551.
- 이현라 (2016).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집단에서 인지적 공감의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에 미치는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4.
- 정남운 (2001). 자기에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천주명, 임영진 (2017).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반응적 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2), 71-87.
- 최지영, 이영순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분노표현양식 및 공감능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1(1), 77-95.
- 한덕용, 전검구, 이장호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Afe, T. O., Emedoh, T. C., Ogunsemi, O., & Adegbohun, A. A. (2016). Intimate partner violence, psychopathology and the women with schizophrenia in an outpatient clinic South-South, Nigeria. *BMC Psychiatry*, 16(1), 197-204.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khtar, S., & Thomp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Barry, T. D., Thompson, A., Barry, C. T., Lochman, J. E., Adler, K., Hill, K (2007). The importance of narcissism in predicting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moderately to highly aggressive children. *Aggressive Behavior*, 33(3), 2007.
- Baron, R. M.,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skin-Sommers, A., Krusemark, E., & Ronningstam, E. (2014). Empathy in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From Clin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5(3), 323-333.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Low Self-Esteem or High Self-Esteem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28.
- Baumeister, R. F., Smart, L.,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0(1), 5-33.
- Betz C. L. (2007). Teen dating violence: an unrecognized health care need.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2(6), 427-429.
- Bossarte R. M., Simon T. R., Swahn M. H. (2008). Clustering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peer violenc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6), 815-33.
- Carton H., Egan V. (2017). The dark triad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5, 84-88.
- Chase K. A., Treboux D., O'leary D. (2002). Characteristics of high-risk adolescents' dating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1), 33-49.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Erlbaum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Turchik, J. A. (2015).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and women and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16(2), 136-152.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4.
-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88). Arousal,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3-699.
- Elmquist. J., Wolford-Clevenger. C., Zapor. H., Febres. J., Shorey. R. C., Hamel. J., Stuart. G. L. (2016). A Gender Comparison of Motivations for Physical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1(1), 186 - 203.
- Frijda, N. H. (1986). *Studies in emo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e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Editions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Helff, C. M., & Laughlin, J. E. (2002). A model for predicting dating violence: Anxious attachment, angry temperament, and need for relationship control. *Violence and Victims*, 17(1), 35-47.
- Hayes, A. F. (2014). *The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 (version 2.11) [Software]*. Available from <http://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
- Henton, J., Cate, R., Koval, J., Lloyd, S., Christopher, S.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3), 467-482.
- Hoffman, L. (1981). *Foundations of family therapy: A conceptual framework for systems change*. NY: Basic Books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4). Empathy and offend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5), 441-476.
- Kaukiainen, A., Björkqvist, K., Lagerspetz, K., Österman, K., Salmivalli, C., Rothberg, S., & Ahlbom, A. (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intelligence, empathy, and three types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5(2), 81-89.
- Khodabakhsh, M. R., Besharat, M. A. (2011). Mediation effect of narciss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qua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30, 907 - 911.

- Makepeace, J.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1), 97-102.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O'Leary, K. D., Malone, J., Tyree, A. (1994).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pre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3), 594-602.
- Papps, B. P., & O'Carrol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Preacher, K. J., Rucker, D. D.,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 Res*, 42(1), 185-227.
- Riggs, D., & O'Leary, K. (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pp. 53-71). New York: Praeger.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462-467.
- Sakellaropoulou M., & Baldwin M. W. (2007). The hidden sides of self-esteem: Two dimensions of implicit self-esteem and their relation to narcissistic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6), 995-1001.
- Smith, A. (2006).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The Psychological Record*, 56, 3-21.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sell, J. D.,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2, 159-187.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van Langen, M. A. M., Wissink, I. B., van Vugt, E. S., Van der Stouwe, T., Stams, G. J. J. M. (2014). The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offending: A meta-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2), 179-189.
- Witte, T. H., Callahan, K. L., Perez-Lopez, M. (2002). Narcissism and Anger: An Exploration of Underlying Correlates. *Psychological reports. Psychological Reports*, 90(3 Pt 1), 871-875.

원고접수일: 2020년 2월 16일

논문심사일: 2020년 2월 29일

게재결정일: 2020년 3월 19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0. Vol. 25, No. 3, 549 - 567

The Role of Cognitive Empathy and Dysfunctional Anger between Covert Narcissism Trait and Dating Violence: A Mediated Moderation Analysis

Sun-Ho Won

Department of Psychology,
Dankook University

Sung-man Bae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cognitive empathy, through the associated dysfunctional Ang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For the study, we conducted surveyed 359 unmarried males and female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di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anger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Second, the moderation effect of cognitive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was found. Third, the moderation effect of cognitive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ysfunctional anger was found. Finally,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anger through cognitive empathy using SPSS Macro Model 8,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covert narcissism and cognitive empathy is mediated by dysfunctional anger.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roles of cognitive empathy to buffer the negativ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dating violence and to reduce dysfunctional anger.

Keywords: Covert Narcissism Trait, Dating Violence, Dysfunctional Anger, Cognitive Empathy